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 Vol. 24, No. 3, 709-719

<Brief Report>

# 기능적, 역기능적 완벽주의자의 성공 및 실패 사건 경험에 대한 귀인

정 명 인 오 수 성† 신 현 균
천주의 성요한병원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 실패 경험에 따라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간에 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대상자는 대학생 52명 중 완벽주의 질문지 점수에 따라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비완벽주의 집단이 각각 30명씩 선정되어 총 9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세 집단은 각각 성공처지조건과 실패처치조건에 무선 배정되었다. 연구 결과, 성공처치조건에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나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더 내부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처치조건에서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더 안정적, 전반적으로 귀인하고,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더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기능적 완벽주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귀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 수 성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Fax : 062-530-2659 / E-mail : ssoh@chonnam.ac.kr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인 여러 가지 결과들 즉, 실패감, 죄의식, 결정 못함, 미루기, 수치심, 낮은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Hollender, 1965; Patch, 1984; Rothblum, Solomon, & Murakai(1986). Hewitt와 Dyck(1986)은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와 우울 간에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는데 비해 비완벽주의자들은 매우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Patch(1984)는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 섭식장애, 불면증, 자살, 공황장애, 강박적 성격장애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여러 가지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완벽주의와 우울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왕미란, 1996; 유성은, 1997; 한기연, 1993;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Slaney와 Johnson(1992)은 완벽주의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3차원으로 나눈 Hewitt와 Flett(1991)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에서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로 구분하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일반적으로 실패경험 및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상태와 관련되지만(문경, 1998; 왕미란, 1996; 한기연, 1993; Flett et al., 199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우울과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람으로 실패를 피하려 노력하고 어려움을 인내하며 일의 성취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이런 특성은 부적응을 반드시 유발하지는 않는다(박진희, 1997; 한기연, 1993; 홍혜영, 1995).

최근에는 완벽주의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완벽주의를 긍정적/부정적 혹은 기능적/역기능적 관점에서 보고자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두개의 요인이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부적응적 평가 염려 요인'으로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의 비난, 보모의 기대, 행동에 대한 의심차원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우울, 부정적 정서와 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긍정적 성취욕구 요인'으로 개인적 기준, 조직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우울과 부정적 정서와 상관이 없고 긍정적 정서와 상관을 보였다. 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와 Winkworth(2000)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요인은 '적응적 개인 기준' 완벽주의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사회적 지지추구와 관련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평가 염려적' 완벽주의로, 이 특성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스트레스,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낮은 사회적 지지추구가 매개하였다.

Rhéaume, Freeston과 Ladouceur(1995)는 완벽주의의 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구별하기 위한 도구로 완벽주의 질문지(Perfectionism Questionnaire: PQ)를 개발하였다. 완벽주의 질문지는 완벽주의 성향과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을 완벽주의 집단으로 보고 이 집단에서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가 높고 낮음에 따라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

능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후속 연구들에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은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가 더 낮고, 지연행동을 더 적게 하며, 자존감이 더 높고(Rhéaume et al., 1995), 강박사고를 더 적게 하고 정확성 과제와 의사 결정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였다(Rhéaume, Freeston, Ladouceur, Bouchard, Gallant, Talbot, & Vallieres, 1999).

국내에서는 박현주(1999)가 완벽주의 질문지를 번안, 타당화하고 이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완벽주의 질문지의 하위차원 중에 완벽주의 성향은 우울, 불안 증상과 관련되지 않고 강박 증상과 관련되며,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하위차원인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가 높을수록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이 낮았다. 즉, 완벽주의 성향은 높고,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가 낮은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완벽주의 성향과 완벽주의 부정적 결과가 모두 높은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강박 증상을 더 많이 나타내며, 더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이처럼 완벽주의의 기능성 여부에 따라 적응과 정서적인 문제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그 과정을 귀인이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박소영(2002)의 연구에서 매개모형 검증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부정적 귀인 양식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 시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집단, 부적응적 완벽주의집단, 적응과 부적응을 함께 보이는 혼란형 완벽주의집단,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 간에 귀인양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정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와 함께 완벽주의와 정서 간에 귀인양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내부귀인하는 경향이 있었고,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을 덜 안정적으로 귀인하였다. 또 혼란형 집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더 전반적으로 귀인하였다. 통제성 차원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을 비교해 볼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의 경우, 부정적 사건에 대한 원인을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았고, 내부 귀인을 하되 통제 불능감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은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내부 귀인을 하되 통제가능한 것으로 지각하고 덜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두 집단간의 귀인양식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모두 부정적인 사건에 대하여 자기 평가나 자기비난 등의 내부귀인을 보이지만 안정성, 전반성, 그리고 통제성 귀인 차원에서는 다른 귀인을 보임으로써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더 역기능적인 귀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더 안정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귀인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귀인에서 기능적,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긍정적인 사건에 대해 내적, 안정적, 전반적, 그리고

통제가능한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은 자존감이나 의욕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도 더 기능적인 귀인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주의와 귀인양식 모두 여러 가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는 변인이며, 완벽주의 성향이 귀인의 매개를 거쳐 정서장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시사되지만, 완벽주의의 두 가지 측면 즉,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에 따라, 그리고 상황조건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인 귀인을 보이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성공과 실패를 조작한 상황 하에서 기능적 완벽주의자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가 사용하는 귀인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질문지 연구에서 규명된 결과들을 실제 성공, 실패 상황에 재검증하는 의미를 가지며, 더 나아가 상황특성과 완벽주의의 기능성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귀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완벽주의가 정서적인 문제나 적응문제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귀인이 매개하는 과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성공경험 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성공경험에 대해 더 내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을 하며, 통제성 차원의 귀인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이에 비해 실패경험 시,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실패 경험에 대해 더 내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을 하며, 통제성 차원의 귀인 점수가 더 낮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의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수강생 521명(남 247명, 여 274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 질문지를 실시하여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및 비완벽주의 집단을 선정하였다. 비완벽주의 집단은 완벽주의 질문지에서 완벽주의 성향점수가 35점 이하(50% 이하)인 경우,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은 완벽주의 성향 점수가 52점 이상(75% 이상),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 점수가 84점 이하(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은 완벽주의 성향 점수가 52점 이상(75% 이상),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 점수가 118점 이상(75% 이상)인 경우를 선정하였다. 세 집단 각각 30명씩 선정하여 총 9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각 집단별로 15명은 성공처치, 15명은 실패처치 조건에 무선적으로 배정되었고 집단별 남녀 비율은 유사하게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및 비완벽주의 집단의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성향과 부정적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세 집단 각각에 대해 성공, 실패 처치조건에 15명씩 무선할당하여, 조건별로 완벽주의 점수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도구

#### 완벽주의 질문지

완벽주의 질문지(Perfectionism Questionnaire; PQ)는 Rhéaume, Freeston과 Ladouceur(1995)가 기능적 완벽주의자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를 구

표 1. 집단 및 성별 완벽주의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 집단 | 성별 | 사례수(n) | 완벽주의 성향 | 부정적 결과 |
|---|---|---|---|---|
| 기능적 완벽주의집단 | 남 | 14 | 57.43(5.15) | 72.07 (8.75) |
| | 여 | 16 | 56.81(3.67) | 73.94 (8.68) |
| | 전체 | 30 | 57.10(4.36) | 73.00 (8.72) |
| 역기능적 완벽주의집단 | 남 | 14 | 56.50(5.49) | 129.50(12.66) |
| | 여 | 16 | 56.31(4.16) | 127.94(10.24) |
| | 전체 | 30 | 56.40(4.74) | 128.72(11.45) |
| 비완벽주의집단 | 남 | 13 | 34.15(2.44) | 56.54(14.04) |
| | 여 | 17 | 34.12(3.67) | 55.35(10.45) |
| | 전체 | 30 | 34.13(3.16) | 55.95(12.25) |

별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이 질문지는 완벽주의 성향, 완벽주의의 영역과 대상,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완벽주의의 영역과 대상의 경우, 완벽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대상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각 영역과 대상의 선정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고 완벽주의 질문지를 사용한 기존 연구(Rhéaume et al., 1995, 1999) 에서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제외하였다. 총 34문항으로 7점 척도상에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박현주(1999)가 번안하고 타당화 작업을 한 완벽주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박현주(1999)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는 전체 척도의 경우, .95, 완벽주의 성향은 .85,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는 전체 척도의 경우, .94, 완벽주의 성향은 .82,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94였다.

**변별학습과제**

Levine의 변별학습과제 카드들을 김연(1985)이 5차원(글자모양, 색깔, 크기, 둘레 모양, 둘레선)을 사용하여 50장의 카드로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연(1985)이 카드 분류 방식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컴퓨터 화면을 이용하였다. 각 화면마다 글자모양(A와 T), 글자 색(빨간색과 파란색), 글자 크기(큰 글씨와 작은 글씨), 둘레 모양(원과 네모), 그리고 둘레 선(실선과 점선)이라는 5가지 차원을 지닌 두 도형이 제시되며 총 32가지의 화면이 이용된다. 실험 참가자는 32가지의 화면 중에서 무선적으로 선택된 6개의 화면들로 구성된 문제를 모두 9번(연습문제 2번과 본문제 7번) 풀게 된다. 실험참가자의 과제는 5가지 차원 중에서 컴퓨터가 임의로 정한 하나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는 것이다. 각 화면이 나타나면 실험 참가자는 왼쪽과 오른쪽에 제시된 도형을 보고 컴퓨터가 임의로 정하고 있는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컴퓨터는 성공 혹은 실패

의 응답을 해준다. 같은 방식으로 6개 화면을 모두 본 후에 실험 참가자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차원을 선택한다. 컴퓨터는 그 선택에 대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준다.

### 귀인양식질문지

Peterson, Semmel, Baeyer, Abramson, Metalsky와 Seligman(1982)이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척도인 귀인양식질문지(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ASQ)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영호(1993)가 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가상적인 사건이 참여자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하도록 한 후 그것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쓰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그 원인의 내외성, 안정성, 전반성 차원에 대해 7점 척도 상에 답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통제성 차원을 더 첨가하였고, 실험 상황이므로 가상적인 사건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변별학습과제를 실시한 후 그 과제의 수행에 대해 한 문항으로 구성된 각각의 차원별로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 실험 절차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지시문은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푸는 변별학습과제로써 어떠한 문제해결방식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먼저, 문제 푸는 방식을 차트를 통해 설명해주면서 실험자와 함께 풀어보게 하였다. 참여자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말하면, 컴퓨터로 연습문제를 실시하였다. 연습문제는 2문제로 참여자가 컴퓨터 버튼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였다. 참여자가 실시할 과제에 대해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는 반응을 하면 본 문제로 들어갔다. 본 문제는 총 7문제로 모두 실시한 후에는 문제에 대한 수행수준(매우 우수한 수준, 평균 수준, 평균 하 수준)이 제시된다는 말과 함께 다 끝나면 실험자를 불러달라는 지시를 하고, 실험자는 참여자가 보이지 않는 뒤편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처치조건(성공, 실패 처치조건)에 따라 변별학습 과제를 실시하였다. 성공처치조건은 변별학습과제에서 본문제 총 7문제 중에 6문제가 맞았다고 하여 성공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고, 실패처치조건은 7문제 중에 6문제가 틀렸다고 하여 실패의 느낌을 갖도록 하는 조건이다. 참여자가 본문제를 모두 풀면 귀인양식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 자료분석

성공처치와 실패처치 조건에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및 비완벽주의 집단 간에 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 × 3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각 처치 조건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성공과 실패 처치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귀인 질문지에서 확인하였다. 즉 변별학습과제에서의 수행에 대해 자신이 성공

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모든 피험자들이 처치조건에 부합하는 응답을 보여 처치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성공처치조건의 피험자들은 모두 자신이 과제에서 성공했다고 응답하였고, 실패처치조건의 모든 피험자들 역시 자신이 실패했다고 응답하였다.

성공, 실패 처치조건과 집단에 따른 귀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성공실패 처치의 주효과는 안정성, 전반성, 및 통제성 차원에서 유의미하였다; $F(1, 84) = 25.77$, $p < .001$, $F(1, 84) = 11.12$, $p < .01$, $F(1, 84) = 5.62$, $p < .05$. 완벽주의 집단의 주효과는 전반성 차원에서만 유의미하였다, $F(2, 84) = 4.60$, $p < .05$. 처치조건과 집단의 상호작용은 안전성과 전반성 차원에서 유의미 경향성을 보였다, $F(2, 84) = 2.94$, $p = .058$, $F(2, 84) = 2.79$, $p = .067$. 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남녀 자료를 합쳐서 분석하였다.

처치조건별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공처치조건에서 집단 간에 귀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공 상황에서 그 원인을 내외귀인하는 데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2, 87) = 3.29$, $p < .05$.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비교를 위해 추가적으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외귀인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8) = 2.08$, $p < .05$. 즉,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성공사건을 더 내부귀인하였다. 또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성공사건을 더 내부귀인하였다, $t(28) = 2.37$, $p < .05$. 안정성, 전반성, 및 통제성 차원에서는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공처치조건에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나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내부귀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가설의 일부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실패처치 조건에서 세 집단 간에 귀인의 차

표 2. 성공, 실패 처치조건에서 집단별 귀인양식점수

| 조건 | 귀인차원 | 기능적 완벽주의 | 역기능적 완벽주의 | 비완벽주의 | $F$ | 집단간 차이 |
|---|---|---|---|---|---|---|
| 성공 처치 조건 | 내외귀인 | 6.20(0.94)[a] | 5.47(0.99)[b] | 5.40(0.91)[c] | 3.29 * | a>b=c |
| | 안정성 | 5.40(1.12) | 5.07(1.53) | 5.53(0.99) | 0.57 | |
| | 전반성 | 5.73(1.16) | 5.40(1.12) | 5.00(1.41) | 1.32 | |
| | 통제성 | 5.60(1.35) | 5.87(0.74) | 5.53(0.92) | 0.65 | |
| 실패 처치 조건 | 내외귀인 | 5.80(1.08) | 5.73(1.03) | 5.80(1.32) | 0.02 | |
| | 안정성 | 3.40(1.40)[a] | 4.60(1.59)[b] | 3.87(0.92) | 3.08 | a<b |
| | 전반성 | 4.13(1.46)[a] | 5.40(1.59)[b] | 3.53(1.85)[c] | 5.06 * | b>a=c |
| | 통제성 | 5.13(1.51) | 4.93(1.39) | 5.00(1.60) | 0.07 | |

* $p < .05$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내외귀인 차원과 통제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패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데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2, 87) = 5.06$, $p < .05$. 기능적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비교를 위해 추가적으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성과 전반적 귀인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8) = -2.19$, $p < .05$, $t(28) = -2.27$, $p < .05$. 즉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실패를 더 안정적이고 더 전반적으로 귀인하였다. 또한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더 전반적으로 귀인하였다, $t(28) = -2.96$, $p < .01$. 이 결과들은 가설의 일부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 논 의

본 연구는 완벽주의 질문지를 실시하여 비완벽주의 집단,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성공-실패 경험에 따라 어떠한 귀인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처치 조건에서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간에 안정성, 전반성, 통제성 귀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나 비완벽주의 집단에 비해 더 내부 귀인하였다. 이는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성공경험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취의 이유를 자신의 노력, 능력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장래에 관련된 일에서 성취를 기대하고 성취지향 행위를 보인다(한규석, 2002). 이는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나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더 적응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실패처치조건에서 집단 간에 내외귀인, 통제성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안정성, 전반성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보다 실패 경험에 대하여 더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귀인을 하였고, 비완벽주의 집단보다 더 전반적인 귀인을 하였다. 이는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실패 경험에 대한 원인을 안정적이고 전반적인 것으로 해석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소영(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보다 성공경험에 대하여 더 내부귀인하고 실패경험에 대하여 더 불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특정적으로 귀인하는 기능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기능적 완벽주의자들보다 성공 경험에 대하여 내부귀인을 적게 하고 실패경험에 대하여 더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귀인하는 역기능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역기능적 완벽주의자들은 실패상황에서 역기능적 귀인을 통해 쉽게 무기력해지고 절망감을 경험하는 등 정서적인 문제와 적응 곤란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연구들이 완벽주의를 기본적으로 병리적인 특성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완벽주의자와 역기능적 완벽주의자가 차별적인 귀인을 한다는 것을 보여줌

으로써 완벽주의라는 특성이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성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성공, 실패라는 상황 특성에 따라 두 집단의 귀인이 다르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적응력과 건강한 측면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완벽주의에 대한 후속 연구들에서도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하고 상황 특성에 따라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완벽주의자들의 귀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설문지를 통한 자기보고를 사용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실험상황을 조작한 뒤 귀인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반복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완벽주의 성향이 귀인과 관련됨을 규명함으로써, 역기능적인 완벽주의 성향이 귀인이라는 인지적 요소의 매개를 거쳐서 적응/부적응이나 정서장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완벽주의와 정서장애나 적응장애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귀인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해 보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집단의 사례수가 15명으로 다소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근접했지만 유의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변인들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해 본 연구 결과를 교차타당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성인집단이나 임상집단에게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일반 성인 집단과 실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경험과 귀인이 역기능적 완벽주의와 심리장애를 어떻게 매개 혹은 중재하는지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가 완벽주의의 역기능성 뿐 아니라 두 집단의 우울수준에서의 차이에 의해 나타났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바, 우울수준을 배제하고 순수한 완벽주의의 영향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연 (1985). 우울증의 귀인 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경 (1998).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 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 (2002). 완벽주의와 정서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귀인양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희 (1998).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직장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왕미란 (1996). 완벽주의, 자의식 및 우울성향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 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2,* 61-68.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Hewitt, P. L., & Dyck, D. C.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137-142.

Hewitt, P. L. & Flett, G. L. (1991).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8-101.

Holla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Patch,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300.

Rhéaume, J.,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5).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m: construct validity of a new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1st annual world congress of behavioral cognitive therapy,* Copenhagen, July 1995.

Rhéaume, J., Freeston, M. H., & Ladouceur, R., Bouchard, C., Gallant, L., Talbot, F., & Vallieres, A. (1999).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ts: Are they different on compulsive-like behaviors?* Submitted for publication.

Rothblum, E. D., Solomon, I. J., & Murakai, J. (1986).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procrastin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87-394.

Slaney, R. B., & Johnson, D. G. (1992). *The Almost Perfect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olomon, L. G.,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503-509.

원고접수일 : 2005. 3. 30
게재결정일 : 2005. 8. 5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5, Vol. 24, No. 3, 709-719

<Brief Report>

# The attribution of success/failure experience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ts

Jung, Myoung In
Hospital of RT. John of God

Oh, Soo Sung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ttributional differences between functional perfectionists and dysfunctional perfectionist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success or failure. The subjects were 521 college students, who were classified into the functional perfectionism group, the dysfunctional perfectionism group, and non-perfectionism group using perfectionism scores. 30 subjects were selected per each group and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success or failure treatment conditions. As a result, the functional perfectionism group attributed their success to more internal causes than the dysfunctional perfectionism group and non-perfectionism group under the success situations. The dysfunctional perfectionism group attributed their failure to more stable causes than the functional perfectionism group, and more global causes than non-perfectionism group. Finally, the meanings of these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functional perfectionism, dysfunctional perfectionism, attribution*